

금융소득종합과세 재 실시 논의

박 용 주

● 주요 내용

- 정부는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재 실시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세부내용과 도입시기에 대한 의견을 절충하고 있음
- (재 실시 논의의 배경)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금융소득 분리과세는 조세형평에 위배됨
 - 더욱이 경제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금융시장의 동요를 우려해 그동안 미루어왔던 금융종합과세의 재 도입 여건이 마련됨
- (향후 전망) 재경부에 따르면 금융종합과세에 관한 세부 정책 방침은 광복절에 있을 대통령의 중산·서민층 보호대책에 포함되어 발표될 것이라고 함
 - 조기에 실시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01년 에나 과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

● 평가

- (찬성론) IMF 위기 이후 소득과 부의 편중 심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실시해야 함
 - 근로소득과 금융소득간의 불공평 과세를 시정하여야 함
 - 1996년 도입시의 경험으로 볼 때 금융소득 종합과세 후 자금시장에 대한 충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임
- (반대론) 대우사태나 해외변수로 주식시장 등 자금시장이 또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질적 효과가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임
 -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는 금융종합과세보다도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과세 강화나 음성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급함
 -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징세 비용을 증가시켜 실질적인 세금 증대 효과는 미흡할 것임

(yjpark@hri.co.kr ☎ 724-4033)

최근 주요 정책(1999. 7. 19 ~ 7. 25)

가전제품 특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예정	재정경제부 (7.22)	- 당초 7월 말 종료하기로 되어 있던 주요 가전제품 특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함 - 이는 중산층·서민의 세부담 축소 차원에서, 그리고 내수가 아 직 97년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판단에서 실시하게 된 조치임
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방안 발표	건설교통부 (7.22)	- 주요 내용: 7개 중소도시권(전주, 춘천, 청주, 여수, 진주, 통영, 제주)을 전면 해제 대상지역으로 확정, 7대 대도시권(서울, 부산, 대전, 광주, 대구, 울산, 마산·창원·진해)은 부분 해제 - 한편 구체적인 경계 조정은 지자체별로 환경평가, 도시계획변경 절차 등을 거쳐 올해 말부터 2000년 7월까지 이뤄짐
2000년부터 환경·교통·재해 ·인구 영향 평가 통합 운영	환경부 (7.21)	- 현행 4가지 평가 제도를 2000년부터 하나로 통합 운영하는 내용 의 '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'을 입법예고함 - 향후 사업자는 통합평가서를 작성, 사업승인기관에 제출해야 하 며, 환경부·건교부·행정자치부 등은 사업승인기관을 통해 협 의내용을 사업자에게 통보하게 됨
디지털 TV 조기 방영 계획	정보통신부 (7.20)	- 정부는 디지털 TV 방송을 2001년부터 조기에 실시키로 하는 '디 지탈 TV 지상파 조기방영 종합계획'을 확정함 - 2000년 시험방송, 2001년부터 수도권에서 부분적 실시, 2002년까 지 수도권 전지역 확대, 광역시는 2003년, 도청 소재지는 2004년, 나머지 시·군·구는 2005년까지 확대 계획
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방안 검토	정부 (7.20)	- 법인세 및 지방세 일정기간 면제, 이전에 소요되는 토지구입비 저리 지원 등의 획기적인 세제 및 금융지원 시행 계획 - 또한 토지수용권, 신시가지 개발권 부여, 병원, 학교 등의 설립 허용, 도로, 철도, 상·하수도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 등 계획
정기법인세 조사 대상 대폭 확대 방침	국세청 (7.19)	- 자산규모 100억 원 이상으로 최근 5년내에 조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조사, 조사를 받은 적이 있더라도 불성 실신고 혐의가 있으면 조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

주요 정책 정보(1999. 7. 26 ~ 8. 1)

7. 28(수)	○(한국은행) 6월중 국제수지 동향 발표 · 수입 급증, 수출 회복으로 흑자 기조를 유지. 그러나 하반기에는 어려운 수출 여건과 수입 폭증세로 흑자폭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판단
7. 29(목)	○(재정경제부) 6월중 산업활동동향 발표 · 생산·출하는 내수 회복과 수출 호조로 두 자리수의 증가세를 지속, 평균가동률도 80% 수준까지 더욱 회복
7. 31(토)	○(재정경제부) 7월 물가동향 발표 · 수요측 압력 증대, 국제 유가 상승세 등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 및 생산 자물가의 안정세가 지속됨